

(사)한국포장협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MOU 체결
 품질경쟁력 향상 기대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운영욱)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창로)이 지난 달 3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한국포장협회 운영욱 회장과 공재홍 전무이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창로 원장, 김인오 부원장, 김철수 사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공인 시험 · 검사기관으로서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회 회원사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김창로 원장은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포장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제품의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협회와 함께 관련 제조업체 기술 및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구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한국포장협회는 회원사들의 포장 관련 시험기관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험기관을 지정,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시험분석, 품



▲ (사)한국포장협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MOU 체결

협회 · 회원사

질검사, 계측지 교정, 연구개발 등의 제반 업무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세워왔다. 이날 양 기관은 제품의 품질향상, 품질인증,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 기술정보 · 교육 · 학술정보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연구원은 협회 회원사의 시험분석 의뢰 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앞으로 회원사들은 비용 절감에 효과 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 제고 및 대외 인지도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은 지난 60년대에 설립된 이래, 포장, 완구, 가구, 섬유, 전기기기, 식품, 의료기기, GLP, GMP, 환경위생 등 다양한 부문

의 생활환경용품에 대한 시험분석, 품질검사, 인증, 기술지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국가 공인 시험 · 검사 · 교정기관이다.

(사)한국포장협회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실시
 9월 22일~12월 20일까지 11주간 실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운영욱)가 오는 9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주간 제10기 포장기

교육 내용 및 일정

주 별	연/월/일	과 목	교재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08. 9. 22 ~ 27	• 포장개요 • 지류포장	08. 9. 22	08. 10. 4
제 2 주	08. 9. 29 ~ 10. 4	• 플라스틱 포장재	08. 9. 29	08. 10. 11
제 3 주	08. 10. 6 ~ 11	•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08. 10. 6	08. 10. 18
제 4 주	08. 10. 13 ~ 18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08. 10. 13	08. 10. 25
제 5 주	08. 10. 20 ~ 25	• 방수 · 방습 · 방청 · 완충 · 중량물 포장기법	08. 10. 20	08. 11. 1
제 6 주	08. 10. 27 ~ 11.1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08. 10. 27	08. 11. 8
제 7 주	08. 11. 3 ~ 8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08. 11. 3	08. 11. 15
제 8 주	08. 11. 10 ~ 15	• 포장기계	08. 11. 10	08. 11. 22
제 9 주	08. 11. 17 ~ 22	• 포장과 환경	08. 11. 17	08. 11. 22
제10주	08. 11. 24 ~ 29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08. 11. 24	08. 12. 6
제11주	08. 12. 1 ~ 6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08. 12. 1	08. 12. 13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08.12. 8	08. 12. 20
최종심의 완료				09. 1. 6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09. 1. 9
수강자 소집교육 및 관리사증 수료		오리엔테이션 및 관리사증 수여		09. 1. 22

술 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 정부(산업자원부) 사업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인력양성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포장협회는 3년간 전역 국고 지원으로 국내 포장인력양성을 위한 14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추진해 왔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개발된 11개 Volume(총 21개 과목)을 1주일 단위로 1개 Volume씩 수강자에게 우송(인쇄책자, CD우송)하며, 수강자들은 교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시험문제 및 논문을 작성하여 주관기관(협회)에 재발송해야 한다.

협회는 수강자들로부터 받은 유인물을 엄밀히 평가해 기록(총 평균 60점 이상 합격), 총 11개 Volume 중 10개 이상의 유인물을 제출한 수강자에 한하여 '포장기술관리사' 증 심의 대상이 된다. 과락(60점미만)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시험의 기회를 주며, 전 과목 평가가 완료된 후, 합격자에 한하여 포장기술관리사증을 수여한다.

포장기술관리사 합격 심의 기준은 레포트 제출 점수(5점), 레포트 질적 평가(60점), 종합시험(35점)으로 구성된다.

수강료는 일반 포장관련 기업의 경우 28만원,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는 22만원이며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15만원이다.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합격자들에게는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증이 수여되는 등 국내 포장산업의 취업, 이직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강화 및

제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전화 02-2026-8655/9, 팩스 02-2026-8660 담당 김은혜)로 하면 된다.

SKC(주)
투명 열수축필름으로 시장 개척
후레쉬 섬머 외 주류 제품에도 적용

종이 라벨을 사용한 일반 소주와 달리 시원한 바다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포장이 병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진로의 '참이슬 후레쉬 섬머'는 시원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참이슬 후레쉬 섬머'는 SKC(주)(대표이사 박장석)의 투명한 열 수축 필름을 적용함으로써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SKC 측은 "본래 열에 강하고 딱딱한 성질의 폴리에스터(PET) 수지에 조성 변화를 줌으로써 역으로 열에 쉽게 수축하는 성질을 부여, 유리병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PET 필름은 과거 병 포장재로 많이 쓰였던 PVC나 셀로판 포장지와 달리 친환경적이고 병의 재활용이 쉬운 것도 장점이다. 가격도 일반 포장용 PET 필름에 비해 2배 이상인 효자 상품이다. 현재 '참이슬 후레쉬 섬머'의 초도 물량 2천7백만병에 이 열수축필름이 포장재로 쓰였고 다른 주류 제품에도 적용을 앞두고 있다.

SKC 관계자는 "열수축필름은 SKC가 세계 2번째로 개발한 제품으로 친환경 포장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범용 PET 제품은 경쟁 격화로 수

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LCD용 베이스필름이나 열수축필름 등 고부가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양화학(주)
사무동 신축 오픈
지난해 9월 화재로 소실

그라비아 잉크 전문 생산업체인 금양화학(주)(대표이사 박애숙)이 사무동을 신축하고 오픈했다.

금양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사무동 신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와 함

께 오픈식을 가졌다.

사무동 오픈은 지난해 9월 옆 회사의 화재로 옮겨 붙은 화재손실로 사무동이 완전 소실됨에 따라 소실된 사무동 자리에 3층의 사무동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오픈식에서 박애숙 사장은 “지난해 화재로 인해 사무동이 소실 됐을때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주저 앉고 싶을 정도로 아무런 의욕도 없었지만 새로 오픈식을 하게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윤영욱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은 “처음 설립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금양화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무동을 마련해 누구보다 기쁘다”며 “옛말에 불난 집은 불같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금양이 번창할 것”이라며 축하의



▲ 금양화학(주) 사무동 신축 오픈

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운영욱 (사)한국포장협회 회장 임경보 (주)보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김세창 세창화학(주) 대표이사, 박노현 롯데알미늄(주) 이사 등이 참석, 사무동 오픈을 축하했다.

금양화학은 지난 1979년 1월 설립돼 1989년 박애숙 대표이사가 승계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벤처기업 확인 인증, 이노비즈 중소기업 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인증 등 30년 가까이 외길을 걷고 있다.

(주)코오롱
필름 · 화학부문 호황
 1분기 2백18억원 이익

(주)코오롱(대표이사 배영호)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5천3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백1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6% 늘었다.

이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광학용필름이 선전하고 있고 범용 제품인 포장용 필름도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 흑자 전환하는 등 필름 사업부의 실적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화학 부문의 주력 제품인 석유수지와 고흡수성수지가 호황을 누리면서 화학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던 점도 한 몫한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해 6월 코오롱유화를 합병하면서 변신의 계기를 마련했다. 합병을 계기로 저

수익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의 시동을 걸었다. 코오롱은 구조조정을 통해 차곡차곡 사업 구조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올 3월에는 코오롱의 모태가 됐던 섬유 부문을 분사했다.

또 지난 4월 30일에는 폴리이미드(PI) 필름 사업 부문을 떼어낸 후 같은 후발주자이자 경쟁사인 SKC와 손을 잡고 자산 2천억원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정리했다.

연성회로기판,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PI필름 사업은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가 1조1천억원에 달했고 앞으로 통신기기가 소형화됨에 따라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을 정도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크다.

코오롱은 SKC와 합작하면서 PI필름 분야에서 단숨에 선발주자인 듀폰-도레이, 가네카 등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달 초에는 저수익 사업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문을 폴리아세탈(POM)을 생산하는 (주)KTP를 통합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회사인 코오롱플라스틱(주)을 출범시키는 방식으로 떼어냈다.

이 같은 사업부문 조정과 더불어 코오롱은 부동산(골프장), 투자유가증권(한국화낙) 등 비핵심 자산(지분)도 매각해 상당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대우증권 이용주 연구원은 “코오롱은 고강도 섬유인 아라미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고, 올해부터 생산한 에폭시, 수처리용 복합관 등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그룹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인 태양광 사업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으로 2분기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
해외전문가 초청 코팅세미나 개최
 Die Coating 시 고려할 트러블 대응책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가 지난 달 20일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룸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코팅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 등 폭넓은 컨설팅(Die, Microgravure, Bar Coating 등 코

팅분야와 조액·송액·탈포·세정 등 주변기술)을 하고 있는 金子 所長을 초청 코팅 및 주변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27일 일본의 “技術情報協會”에서 주최했던 “Die Coating에 있어서의 코팅 최적 설계·트러블 대책” 중 “Die Coating에서 고려하여야 할 트러블·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 및 올해 4월 16일(Osaka), 4월 22일(Tokyo) 加工技術研究會 주최로 개최된 “코팅액의 조정·송액기술의 기본 및 현장의 과제”로 강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밀코팅 기술을 전자재료 및 광학필름 분야에 응용전개하는 경우, 기술적인 포인트나 개발·실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코팅줄, Seeds, 거품, 오염, 막두께 분포 등)



▲ 한국포장기술연구소 해외전문가 초청 코팅세미나 개최

과 이들의 대응책에 대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e Coating 기술의 실용화시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강연이 있었다.

성안기계(주)
컨버팅설비 제작 기술 세미나 발표
생기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서

그라비아 인쇄기계 전문 제작업체인 성안기계(주)(대표이사 신동호)가 지난달 24일 컨버팅설비 제작사양 기술세미나를 가졌다.

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2차 R&D 기반조성을 위한 패키징 기술세미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강희수 기

술이사가 발표를 했다. 이날 세미나의 2차 발표는 정현욱 고려대학교 교수의 코팅공정의 유변학 특성이란 주제로 진행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안기계 신동호 사장을 비롯해 업계, 학계인사 40여명이 참석해 기술세미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주)지엠피
DRUPA 2008 전시회 참가
전세계 라미네이팅 시장 선도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가 5월 29일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인쇄 및 제지 박람회인 DRUPA 2008에 참가(HALL 11-E27 27부스 규모), 전 세계의



◀ 성안기계(주) 컨버팅설비 제작 기술 세미나 개최

인쇄 산업계와 라미네이팅 업계로부터 기술적 선두주자임을 각인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지엠피는 이번 전시회에 전자 유도가열 롤러를 자체 제작, 세계 최초의 Induction Heating 롤러가 장착된 라미네이터를 전체기종에 장착해 선보였다. 전자 유도가열롤러는 예열시간이 짧아 에너지 효율이 일반 롤러보다 50% 이상 좋고, 온도편차가 없으며(+/-1C), 고장이 없어 반영구적이다. 또한 보일러와 배관이 필요없어 설치면적이 적어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장점이 있다.

지엠피는 세계 최대의 인쇄기 제조사인 하이델베르크의 기술지원을 받아 Heidelberg Speed Master 74와 Speed Master102 Feeder를 초고속 라미네이터에 장착했다. 이는 완벽한 성능의 Heidelberg Feeder를 초고

속으로 설계된 지엠피의 라미네이팅기에 장착, 선보임으로써 독보적인 위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지엠피는 PET나 NYLON 등의 단면 라미네이팅 시 고속절단이 가능한 ROTARY FLYING KNIFE SYSTEM을 선보여 그 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어 온 절단면 불량문제를 해결, 향후 PET 및 Nylon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엠피가 세계특허를 갖고 있는 엠보싱 라미네이팅 기법을 다양하게 선보여, 새로운 인쇄 후 가공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업계의 부가가치 증대에 일조한 지엠피의 연구개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엠피의 라미네이팅 필름도 디지털 프린트용 ULTRA BOND 필름을 새롭게 선보여 상상을



▲ DRUPA 2008에 참가한 지엠피

초월하는 초강력 접착력으로 HP, XEROX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쇄를 위한 전자동 라미네이터 EUROLAM-520DUAL과 PIONEER-5000 및 전자동 UV 코팅기 EUROCOATER 등은 새롭게 급성장하는 디지털 프린트 시장의 표면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콤팩트하고 성능 좋은 제품으로 극찬을 받고 26대를 수주를 받았으며 차후 지엠피 매출 증진의 효자제품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GMP PIONEER 시리즈는 읍셋 인쇄 및 디지털 인쇄의 대량 작업을 위한 라미네이팅기로 분당 70m의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며 초정밀 온도제어 인덕션 히팅롤러를 장착, 롤러 온도가 정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이번 전시회에는 Heidelberg feeder를 장착하고 또한 고속 엠보싱기능과 함께 Rotary Flying Knife unit를 세계 최초로 선보여 극찬을 받았고, 8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GMP CHALLENGER 시리즈는 분당 1백m의 초고속 생산력을 지닌 제품으로 2중 롤러를 장착해 유광 및 엠보싱 써멀라미네이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선보였으며, 또한, Heidelberg Feeder를 장착, 초정밀급지(+/-1mm)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최첨단 Flying Knife Cutting 방식을 통해 PET및 Nylon 필름의 재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라미네이팅 작업의 질과 작업속도를 증대시켰으며, 6대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Digital UV코팅시장을 겨냥한 EUROCOATER-04M UV의 경우, 친환경적인 작업방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차후에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UV코팅시장에 새 바람을 예고하듯 참가자들의 문의와 상담이 연일 줄을 이었으며, 신기종인 56cm폭의 EUROCOATER-06J와 EUROCOATER-SV06J(SPOT Varnishing)기를 제조하기로 하고 9월 한국에서 열리는 KIPES 2008(9/25~9/28 Kintex) 전시회에서 선보이기로 했다.



◀ 디지털 인쇄를 위한 전자동 라미네이터 EUROLAM-520DUAL

써멀 라미네이팅 필름의 경우 디지털 인쇄물에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하는 당사의 ULTRABOND 시리즈 필름을 출품, 디지털 출력물 후가공의 접착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지엠피의 DRUPA 2008 전시회에는 하루 평균 3백여명의 바이어가 지엠피의 부스를 방문해 상담 및 견적문의를 했으며 이를 통해 28개국 37개 업체에 총 5백43만불의 수주상담 중 현지에서 약 2백1만불이 전시 중 직판됐고, 나머지 3백42만불은 최종 계약서의 서명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GMP는 Drupa 2008 전시회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HP indigo 및 제록스 등 유수의 디지털 인쇄산업의 선진기업과 공동 마케팅 및 기술 제휴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지엠피의 김양평 회장은 “전시회 기간 중 당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전 세계 바이어들과 국내 인쇄분야, 라미네이팅 및 코팅업체의 지인,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물심양면으로 당사의 앞선 라미네이팅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현재 GMP 본사 및 생산 공장에서는 전시회 참가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생산라인을 확대, 정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MP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인쇄전문전시회 KIPES를 통해 Drupa 2008에 미처 선보이지 못한 대형 오버코팅기 PACKAGE MASTER-10J OC와 초고속 양면 라미넥스용 ENCAPSUMASTER-08N 등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며,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50여개국 70여명의 바

이어 초청 세미나 및 국내의 5백여 인쇄 산업 관련인사를 초빙 오픈하우스(Open House)를 개최, 전 세계 라미네이팅 및 코팅 시장에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계속 선보일 방침이다.

서울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안전 식품 공급 기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본격적인 식품안전 프로젝트 시행에 발 맞춰 시민고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중·소형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기술지원과 시설개선 융자금 및 위생용품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달 16일 밝혔다.

일명 식품안전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대기업식품연구소 연구원, 식품기술사, 식품연구기관 연구원들로 구성된 후견인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조공정기술, 생산 인력관리, 품질개선, 표시기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1대 1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중·소형식품제조업소 50개소를 6월 한 달간 모집해 후견인과 함께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이나 업소 운영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진단한 후 7월부터 12월까지 후견인들이 직접 식품제조가공업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방문지도시 미흡사항은 자체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참여업체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당해연도 지도점검을 면제하며 시설개선 필요시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연리

2%)을 저리로 용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식품산업육성을 통해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단속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둔 식품안전 행정으로 전환하며 시민고객들에게는 더욱 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성서공단에 NB 캔 처리시설 구축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제품경쟁력 제고

대구지역 바이오업체들의 생산제품을 NB(New Bottle)캔에 담을 수 있는 생산시설이 성서공단에 구축됐다.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이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제품의 고급화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에 연면적 2천3백10㎡의 ‘바이오제품 시 생산지원시설’을 지난 달 완공했다.

바이오제품 시생산지원시설은 새로운 액상제품 포장용기로 각광받고 있는 NB캔을 비롯, 유리병, PET 병 등을 사용하는 바이오제품을 하루 10만병(1백ml 기준)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의 다이와제관이 특허를 보유한 NB캔의 경우 알루미늄 재질로 휴대가 간편하고 고온살균 및 산소와 빛의 차단이 가능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보온·보냉효과가 높은 친환경소재다.

특히 용기의 표면에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고급화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음료용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국

내에서도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처리시설이 충북지역에 한 곳 밖에 없고 대기업을 상대로 대량생산만 하기 때문에 지역 바이오업체들은 NB캔을 제품에 적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번 시생산지원시설 구축으로 업체들은 시제품을 생산한 뒤 시장의 반응에 따라 필요한 만큼 주문생산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일 라인에서 다양한 용량(1백~3백50ml)의 NB캔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제품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9월 다이와제관과 용기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한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이오산업지원센터는 현재 지역의 13개 업체가 23개 제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제품생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15개 업체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테크노파크 장욱현 원장은 “바이오제품 시생산지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대구는 물론 전국 바이오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식경제부
디자인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디자인상 순회설명회 열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디자인기업 대표 및 디자이너 3백명이 참가한